

산재살인 포스코, 미얀마 학살 군부 돈줄

미얀마 군부 돕는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 ... “군사독재 세력과 경제협력 중단해야”

“미얀마 군부와 합작한 포스코를 규탄한다.”

금속노조가 3월 25일 오전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미얀마 군부 도와주는 포스코 규탄,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의 돈줄인 군사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주도하는 미얀마군 33사단 간부들이 MEHL 주주다. 포스코는 MEHL과 포스코강판(C&C) 합작회사를 설립했고, 미얀마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미얀마 군부 자금줄을 끊어야 군부 살인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포스코에 반인륜 범죄집단인 미얀마 군부 세력과 합작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 기자회견에 <국제민주연대>,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등이 함께했다.

포스코는 현재 미얀마 군부에 주는 배당금을 보류한다는 결정만 밝힌 채, MEHL과 계약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 미얀마 쿠데타가 터지자 팬-퍼시픽, 기린홀딩스 등 다른 나라 기업들이 MEHL과 합작투자를 끝내겠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된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가 손잡고 있는 미얀마군 33사단이 어린아이들에게 총을 쏘고,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노동자 총파업을 무력으로 유혈 진압했다”라며 분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알고 있는 한국의 기업이 군사독재 세력에 협조하다니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미얀마 무관부 앞 1인 시위를 매일 이어나가는

등 전국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미얀마 노동자 투쟁과 시민 불복종 운동에 연대하고 있다”라며 “금속노조는 미얀마에 하루빨리 진정한 봄이 오길 바란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더 큰 연대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국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내놔고, 대통령이 미얀마 유혈진압 폭력중단 성명을 발표했다지만, 정작 포스코의 미얀마 군부 지원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 없다.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울산지부 정면돌파 현대차 재벌 탐욕 깨자”

울산지부 2021년 투쟁 선포대회 ... 임단협 해 넘긴 현대제철울산지회 연대 결의

금속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21년 투쟁의 문을 열었다. 노조 울산지부는 3월 24일 오후 울산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울산공장 앞에서 ‘민주노조 사수, 현대제철울산지회 승리, 2021년 금속노조 울산지부 정면돌파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김성현 노조 울산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은 투쟁사에서 “현대제철 울산공장에 금속노조 깃발을 올린 뒤 계절이 세 번 바뀌고 해가 바뀌었지만, 현대제철은 여전히 금속노조를 인정않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김성현 지회장은 “노동자들은 떼쓰지 않는다. 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데 사측은 왜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파행으로 이끄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토로했다.

김성현 지회장은 “현대제철은 즉각 성실교섭에 나서야 한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다 용기 내 만든 노동조합이다. 물러설 생각 전혀 없다”라며 “울산지부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양재동가이드라인 깨고 염포동 공장 안에 금속노조 단체협약을 자랑스럽게 내걸겠다”라고 결의했다.

2020년 4월 19일 현대제철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울산지부 현대제철지회를 만들었다. 현대제철 국내 여섯 개

공장 전체에 금속노조 깃발이 올랐다.

현대제철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회는 전임자 등 기본 노동조합 활동조차 보장받지 못해 노조 가입 직후부터 투쟁했다. 투쟁으로 5개월 만에 기본협약을 맺고 첫 단체협약을 위해 2020년 임금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사측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현대제철지회투쟁에 힘 싣는다”

윤장혁 노조 울산지부장은 대회사에서 “현대제철지회를 세운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현대제철이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2020년 임단협이 결국 해를 넘겼다”라고 규탄했다.

윤장혁 지부장은 “6개월째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제철지회에 힘을 주고, 현대제철 자본에 경고하기 위해 올해 울산지부 투쟁 선포를 이곳에서 하고 있다”라고 설

명했다.

윤장혁 지부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은 양재동가이드라인이라는 자신들이 그어 놓은 선 안에 노동조합을 가두고, 노동자들을 순한 양으로 길들이려 한다”라며 “현대제철지회 투쟁은 울산지부 전체의 투쟁이다. 울산지부가 전면에서 나서 승리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윤장혁 지부장은 현대차 자본에 대해 경고를 잊지 않았다. “정몽구와 정의선이 지난해 현대차·현대모비스에서 각각 연봉 40억과 59억 원을 받았는데, 현대차그룹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동결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윤 지부장은 “현대제철지회는 물론이고 울산지부 조합원 대부분이 현대차 자본 영향을 받고 있다. 6천 울산지부 정면돌파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현대차 재벌의 탐욕을 깨부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중노위 지켜보겠어”

현대위아 직접고용·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 결의대회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3월 24일 오후 ‘원청이 사용자다, 부당노동행위 처벌하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위아가 진짜 사장이다. 직접고용 이행하라”라고 외쳤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 를 통해 “정리해고법, 기간제 파견법을 날치기로 만든 지 23년이 지났다. 이제 잘못된 비정규직법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얼마 전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하반기 정기국회를 겨냥해 비정규직법·노조법 제·개정 투쟁을

결의했다”라며 “금속노조가 함께 투쟁의 포문을 열겠다. 오늘 대회가 시작이다. 2021년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조직하자”라고 호소했다.

김영일 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은 “우리 지회는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라며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투쟁하면 우리 지회처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는 이날부터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위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리는 날까지 농성을 진행한다.

정구양 금속노조 경기지부 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노동자들을 울산으로 강제 전보한 행위는 노동조합을 깨려는 부당노동행위이다”라며 “중노위가 상식을 벗어난 판단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경기지부가 이 투쟁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 조합원들은 요구를 적은 손팻말을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담에 붙이는 상징의식을 벌이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노동부가 최정우 경호대”

살인기업 포스코·무능력 노동부 규탄 경북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무능력 살인 공범 노동부를 규탄한다.” 금속노조 구미·경주·포항지부가 포스코의 노동자 살인을 막지 못한 노동부를 규탄했다.

금속노조 경북권 세 지부가 3월 24일 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살인기업 포스코·무능력 노동부 규탄, 위협의 외주화 중단, 경북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부가 최정우 경호대를 자임하며 반노동자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에 대한 투쟁을 전면화할 것” 이다

라고 선언했다. 김용화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가 금속노조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으면, 세종청사에서 19만 금속노조의 푸른 깃발을 마주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박찬호 경주지부 세진지회장은 현장 투쟁사를 통해 “1월 18일 도장공장 화재로 모든 설비가 불타고 현장이 사라졌다”라면서 “화재 이후 총고용 보장을 걸고 교섭에 돌입했으나 사측은 고통 분담을 강요하며 구조조정안을 제출했다”라

고 보고했다. 박찬호 지회장은 “지회는 3월 19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라면서 세진지회 총고용 보장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김모환 포항지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톨앤톨분회장은 현장 투쟁사에서 “최정우 회장 취임 후에 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서 집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라면서 “대다수가 하청노동자”라고 꼬집었다. 김모환 분회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이라고 결의했다.